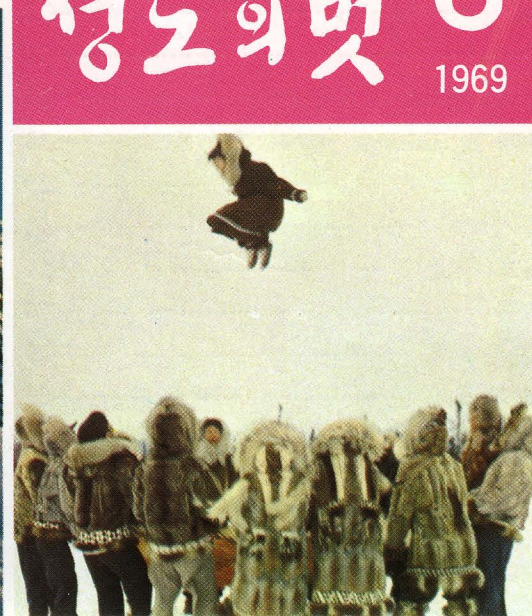


1967年 10月 4日 公報부등록 라-932

성도의 벗 6

1969

알래스카의 교회





영감의 멧세지

스터얼링 더블유. 실
십이사도 보조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6월 1일
(통권 제 47호)

물은 우주의 근원이며 생명의 상징입니다. 예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청결한 물은 또한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지상을 통치하게 될 복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블모의 사막에서……땅이 다시는 목마른 땅이 되지 아니하리라.” (교성 133 : 29)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또한 청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회개의 물로 자신을 청결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하고 주님의 속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마련해 주셨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충분한 수분을 준비하셔서 아름답고 무엇인가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약동하게 하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묵묵히 순종하고 정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속 깊이 심어진 숨겨진 능력을 움직이게 하시어 우리의 생활을 순결케 할 수도 있으시며 종말에는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영원한 승영을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T. S. D.)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 가 : 50원
1년 구독료(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표지 설명 : 이 달의 표지는 미국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5천여 말일성도가 살고 있는 알라스카를 잡아 보았다. 좌상 : 맥니엘 강에서 연어를 찾고 있는 갈색 곰. 우상 : 고기를 안고 있는 알라스카 소년. 좌중 : 앵카라지 북방 마타누스카 계곡의 외딴 가옥. 우중 : 빙하 뱀으로 이루어진 조지호의 붕괴. 좌하 : 앵카라지 근처의 겨울 풍경. 우중 : 에스키모인이 즐기는 담요로 사람 받아 올리기. 우하 : 알라스카 중심부 드날리 고가 도로 근처에서 카메라에 잡힌 사슴. 잔 머찬트가 찍은 앵카라지 겨울 풍경 사진 이외의 것은 스튜워츠가 촬영한 것이다.

제5권 제6호 순서 1969년 6월호

권두언	참된 완성의 길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 특별 기고 □			
알라스카의 교회	에리노 노울즈		3
영감을 주는 사랑	리드 에이치. 프랫워드		7
주일학교 : 손을 잡고서	맥스 비. 엘리웃		10
만사는 보는 이의 견지에서			12
계보란 : 계보상의 새로운 거인 제도			14
어린이 성도의 벗 : 임금님의 새옷	한스 크리스찬 안텔센		15
가시털이 곱슬머리가 된	고슴도치 마조리 하밋 가드너		18
상호 부조회 : 현세가 아니면	영생에서 헤롤드 비. 리		19
관리 감독단 페이지 : 간증	존 에이치. 반덴버그		22
청소년편 :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윌라드 밋 롬니		24
신권의 직분	리차드 오. 코원		26
선교부장 멧세지 : 성찬식에서의	성약 서 현보		29
지방부장 멧세지 : 사회에	소금이 되자 차 종환		30
내외소식			31
진리의 말씀	리차드 엘. 이반스		뒷표지



참된 완성의 길로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우리가 진리에 좇아 생활할 때 자유—개인의 자유를 연습합니다. 약 2,000년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나?” (요한 18:38)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아직까지도 주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진리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진리란 사실과의 일치를

뜻한다. 진리는 원형과의 조화, 계속성, 충실함의 의미한다. 추상적인 뜻에서 보면 진리란 바로 존재하는 사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찬송가에 보면,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는 질문이 있고 “못 보배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대답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15장)

진리는 만물의 본질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진리는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고, 미래에 존재할 사물에 대한 지식”이라고 (교성 93 : 24)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만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 8 : 31—32) 이것이 바로 자유이며, 개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양심이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잡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따르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고 새 생명으로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안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확인을 받고 난 후 신회의 한 분이신 성령의 특별한 안내와 영감을 받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무한하신 분과 교제함을 뜻합니다. 영적인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더욱 더 힘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점점 떨어져나가고 진리가 자기의 영혼을 성장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에의 선행”을 행함은 영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며 인간이 갖출 최상의 속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고 모든 창조물의 왕이 되게한 영광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권고의 말씀은 참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 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혼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혼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베키로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 : 45—46)

이 말씀이야말로 말로 높은 곳으로부터 신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침례와 확인 안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며 이들이 합당하게 살기만하면 성령이 끊임없이 이들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거짓되거나 표리가 부동한 자세로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하여 성령의 안내를 따르려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저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하는 바가 영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나에 관계없이 우리가 얻는 지식은 스스로가 선택한 분야에서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킬 뿐이라고 하

는 사실은 변경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지식의 원천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여기 바른 생활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철학이야말로 말로 인간의 영혼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자리, 곧 우리의 구세주와 같은 완전의 모습에 이를 수 있음이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행복과 쾌락의 지름길을 찾는 젊은 남녀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며, 엄청난 죄악의 노예가 되어 결국 저들이 추구하던 이른바 행복이 영혼 속에 찢터미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방탕한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전해주시는 교훈은 참으로 훌륭한 교훈입니다. 그 아들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가정의 여건도 좋았고 삶의 참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질 기회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차 아버지의 재산을 헐과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나름으로의 행복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워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에게 매어있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소녀가 제게 이런 편지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6살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시고 저의 체모는 제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외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네는 가정의 엄한 간섭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네를 아직도 어린 아이로 여겼고 여인으로 성숙하는 나이로 접어든 그네가 성숙의 날개짓을 해보고 싶어하는 요구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그의 심경이 이 소녀와 흡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눅15 : 12) 그는 자기 몫을 받아 진리가 아닌 쾌락의 추구로, 오늘날 수백만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그 몫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있는 동안은 그런듯한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는 술로 쾌락을 탐했습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참으로 자유를 가졌다고 생각했으나 사실은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속박에 엄청난 자가 되었고 전혀 행복을 얻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유를 원한다면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 곧 진리로 인도하는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의미의 진리를 따르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에 진실하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에 진실하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모두 가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알라스카의 교회

에리노 노울즈



● 1910년 9월의 어느 오후 북풍이 맹게 불고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찬 광부들, 모피 사냥꾼, 어부 이외에도 많은 구경꾼이 베링해안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참으로 별난 일을 보려고 그곳에 모여있었다. 오후 2시 정각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제사로 90세나 된 이. 지. 캐논 박사가 단으로 다가가 청중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온몸에 흰색의 옷을 입은 에이. 더블유. 앤토니 부인을 물 속으로 인도하여, 바닷가에 부딪치는 요란스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캐논 박사는 그 여인에게 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식으로 침례를 베풀었다.

북미에서 가장 높은 맥킨리산은 여름에도 눈과 어름으로 덮여 있다.

1967년 10월에도 알라스카의 하이더 근처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부리티쉬 컬럼비아의 스추아트 시에 사는 노라 맥크레의는 북음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밴쿠버 소재 알라스카-가나다 선교본부에 더 상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왔다. 알자 에이 킥클리 선교부장의 부인인 엘머 티 킥클리 자매와 몇달을 교신한 후에 그 여자는 침례 받기를 청하였다. 여러 주일이 지나서 비로소 선교사 두 사람이 스추아트시로 떠날 수 있게 되었다. 3일후 그들은 그 여자와 토론을 하고 그 여자가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침례를 줄만한 장소가 없었다. 마을 가까이 있는 호수는 온통 얼어 붙어서 두께가 18인치나 되는 견고한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 젊은 여성이 침례를 받기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던 그 지방 사람 중의 하나가 어느 일요일 아침 그 바닷가로부터 35마



일이나 떨어져있는 하이더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지금 곧 이곳에 오신다면 조류가 꼭 알맞아서 바다에서 칩레받을 수 있겠습니까.”라는 얘기였다. 맥크레이 자매와 두 선교사와 스추와트시의 많은 주민들은 급히 자동차에 올라 모진 눈보라 속을 뚫고 하이더로 달려갔다. 그들이 바다 가까이 갔을 때 눈보라는 멈추기 시작했고, 어둔 하늘 한 쪽이 트였다. 태양이 구름 사이를 비치기 시작할 때, 노라 맥크레이 자매는 칩레를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칩레를 끝내고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가려고 하자 다시 눈보라가 일기 시작했다.

이들 두 사람은 우리 교회를 배우고 개종한 미국의 제 49번 주의(알래스카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얼어붙은 바다 물 속에서 칩레를 받은 사람이다.

미국에서도 가장 땅이 넓고 가장 인구가 희박한 알래스카는 놀라울게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 교회도 같은 보조로 자라고 있다. 오늘날에는 약 5,000명의 말일성도가 그곳에 살고 있지만, 1950년 경에는 450명, 1935년에는 11명에 불과했었다. 앵커리지에서 북쪽으로 300마일 떨어진 웨어뱅크(이 거리를 기차로 달리면 12시간이나 걸린다)까지 관장하는 알래스카 스테이크는 3,300명의 성도가 있다. 또 다른 1,800명의 성도가 선교지역에 있는 데 이 지역은 알래스카와 캐나다 양쪽에 걸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지역이다.

알래스카 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부리티쉬 컬럼비아 및 유컨지대까지 포함하는 1,100,000 평방 마일이나 되는 광대한 지역이다.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광부, 의사, 변호사, 교사, 학생, 비행기 조종사, 산길잡이, 군인인, 어부이고 사냥꾼, 자기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 정부관리, 건축업자, 실업가 가정 주부, 어린이들로—사실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개척정신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알래스카의 어느 곳에 가거나 사람들은 모두 저들이 현대의 개척자라는 인상을 풍겨주고 있다. 알래스카 사람들에게는 절박하고 목표가 확실하고 모험적인 기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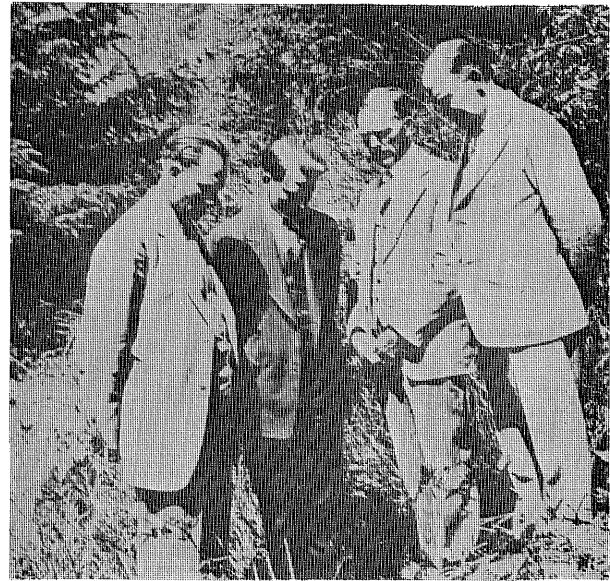
19세기말 황금을 찾아 수천명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모여들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변경이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세월이 걸렸다. 북미 대륙의 북서해안의 한 구석이었던 이곳은 약 200여년 전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발견되지도 않았었고 따라서 지도에도 실리지 않았던 유일한 지역이었다. 그 당시의 지도는 북카리 후오나 해안에서 그쳤고, 아세아와 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되어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았었다.

1731년 뷔터스 베어링이 러시아의 피터 대왕의 명령을 받고 출항해서 오늘날 그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해협을 향해함으로서 이 양대륙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1741년 두번째 항해를 하여 오늘날 알래스카 캐나다의 국경에서 10마일 이내에 있는 세인트 엘리야스산 부근에 상륙했다. 베어링은 이 새 대륙이 다른 섬이나 소대륙이 아닌 아메리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미국 서쪽

방향에서 시도하여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확인한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

그후 약 50년이 지나서 북미에 최초로 러시아 사람들의 정착지가 세워졌고 또 바로 그때 코디얏 아일랜드의 쓰리센스베이에 다른 탐험대가 닻을 내렸다. 러시아 사람들은 주요한 강 연안에 교역할 지점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고국에 가지고 가서 팔기 위한 모피 채집을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영국, 불란서, 서반아, 미국등 여러 나라 선박이 이 북극 깊숙히 탐험을 하게되었고 많은 모피의 교역을 하였다. 1867년에 이르러서는 이 지역에 서식하던 수달과 물개를 멸종케 했으며, 이 귀중한 자원이 고갈되자 러시아 황제는 이 땅을 팔기로 결정 했다.

1867년 3월에 미국과 러시아 두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다. 일년 후 하원이 소집되고 7,200,000불의 청구에 대한 지불 문제를 토의할 때 회의적인 의원들은 이 영토를 아이스버—지아 라고 툰델을 붙여 놓았었다. 그후 30년



알래스카는 1928년 6월 6일 주노 근처에서 북을 전도를 위한 축복과 성별을 받았다. 오른 쪽에서 두번째 계신 히버 에스 장로가 헌납기도를 올렸다. 알빈 앵글스테드, 제임스 쥬드, 로웰 플라우 맨 장로도 자리를 같이 했다.

동안 알래스카에 대한 사람들의 의향은 북극곰이나 적합한 어류와 눈 만이 필요 없이 쌓여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후 1897년 씨애틀 신문은 「한톤의 황금」이란 제목으로 알래스카에 대한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에스. 에스. 포트랜드 회사는 캐나다 영인 유—컨 지역에서 있었던 클론다이크 파업에 관한 보상금을 지불토록 피소되었다. 즉각적으로 미 전국에서 모험가들이 알래스카 및 캐나다의 금광으로 모여들었다. 몇 사람 굉장한 부자가 된 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값비싼 광물을 찾아 내지 못했다. 20년이 다 못되어서 풍성 했던 광맥도 모두 끊어지고 알래스카는 또 다시 망각 속에 묻혀 버려졌다. 그 토지의 진짜 재산은 여건히 숨겨진 채 개발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

다. 그리고 20세기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마침내 알라스카의 가장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이 자원이란 유류, 광물, 수력전기, 천연가스, 삼림(목재)등이 그것이다.

이차 세계 대전은 알라스카에 새로운 관심을 가져오게 했는데 가장 먼 거리의 이 지역이 전략적인 견지에서 일본이나 소련과 가깝다는 점이다. 일본 군대가 아류산 군도 중에 있는 아투 및 키사카 두 섬에 대진하고 있을 때 미국은 이곳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고 광대한 알라스카 전토에 경보를 울리게 하는 장치를 하려고 서둘렀다. 오늘날 몇가지 열쇠 역할을 하는 군 시설이 이곳에 깊이 뿌리박고 있고, 이곳은 정부가 아니면 투자를 꺼려하는 지역이다.

대전 후의 한참 경기 좋던 몇해가 지나고서 알라스카에서의 교회의 성장 발전이 시작되었다. 아마도 우리가 알기에는 말일성도로서 최초로 그곳에 간 사람은 금광업자

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 후 1928년에 북서 선교지역의 윌리엄 알. 쓸로운 선교부장은 히버 믹스, 엘빈, 잉글스테드, 제임스. 쥬드, 그리고 로엘 폴루우맨 등 4명의 장로를 알라스카 주노에 보내서 그곳에 지방부를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의 여부를 살피게 했다. 유타주 카납에서 단기 복무 선교사로 일하던 믹스장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다음 날 아침 (6월 6일) 우리는 금식을 했다. 일행은 산에 올라가서 도시와 해안을 내려다 보고 또 주의해서 선정한 아름다운 지점에서 기도를 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들이 여관으로 돌아 갔을 때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와 면회를 요구 했다. 다음 날 장로들은 그 지방 신문 편집자에게 물문경 한 권을 증정했다. 그후에 그들은 상공회의소 오찬에서 설교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그 신문은 그들의 말한 것을 모두 기재했다. 그들이 알라스카를 떠나기 전까지 무려 1,300권의 물문경을 팔았다.

1928년 8월에 폴라우먼 장로는 특히 인디안들 사이에 교회 사업이 발전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인디안들은……자기네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들은 물문경에 아주 열심이다. 이들 인디안은 자기들의 선조에 관한 것을 배우려고 애쓴다. 그들은 우리가 말해주는 것을 열심히 듣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에 만족해 하는 것 같다. 이들 인디안도 역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 전설은 멕시코에 사는 아즈텍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

어제 나는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는 인디안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그들의 종교 문제에 관한 의견은 여러 갈래였다. 한 부인이 말하기를 자기들의 선조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바로 그때 내가 그 장소에 이르렀다. 자매들 중의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것이라고 믿는 이도 있었다. 또 나는 오늘 오후에도 그들과 만날 약속을 했다.”

선교에 관한 열의는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산발적이었고, 알라스카에 살고 있던 몇사람의 성도들은 전에는 농장주이거나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로 그 곳에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와싱턴시에서 온 스튜아트 씨. 캠볼인데, 그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증손이다. 캠볼은 1935년에 미시간, 위스컨신, 미네소타 등지에서 와서 앵커리지 북쪽에 있는 마타누스카 계곡에 집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던 200여 세대의 재산 관리인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이번 탐험은 옛날 개척자들이 사용했던 마차나 손수레 대신에 화약과 트럭터와 그밖에 현대적인 장비로 산림을 벌채하고 토지를 개간하였습니다만, 나는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 같은 경험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개척자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들으며 자라온 내가 개척운동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라스카 크네에 위치한 예배당. 19세기 러시아 원주민의 가옥의 유물이다.

인 이. 지. 캐논 박사일 것이다. 그는 1871년에 개종했고 알라스카 온 지역을 여행하면서 바퀴 달린 예배당을 늘 가지고 다녔고 거기서 그는 슈워드반도나 노움 지방의 광산 천막을 찾아다니며 모임을 열고 하였다. 노움에서 케이. 엔. 워니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1902년 베어링 해에서 침례를 주었다. 1910년 캐논 박사가 죽을 때까지 이 두 사람은 선교사로서 부름은 받지 않았으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비공식적인 선교사 역할을 하였다.

알라스카 지역은 1925년 경까지는 북서부 선교지역의 관할 구역이었고 그 후 부터는 알라스카 캐나다 선교지역의 일부가 되었다. 1913년에 최초로 선교사들이 주노에 파견되었고, 그 후에 이 알라스카에 찾아갔었지만 별로 성

1938년 7월에 북서 선교부의 프레스톤, 니플리 부처는 북서부 일대를 여행하였다. 7월 10일 알라스카 교회의 최초 지부인 웨어뱅크 지부를 조직했는데 그 자리에는 약 20명의 회원이 출석하고 있었다. 그날 밤 공회당에서 가졌던 일반대회에는 100명 이상의 방문자 및 구도자가 출석했고, 그후 다섯 사람이 올라 와서 자기들은 물론이며 여러달 동안 이 도시에 살아왔지만 자기들 이외의 다른 물론이 살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앵커리지 교회에서의 최초의 일반 대회는 1941년 3월 23일 개최되었다. 그 다음 주에 그 도시 바로 북쪽에 있는 군사기지인 후오 트 리차드스에 있는 종군 목사는 두 사람의 장로—레스터 엠. 휴펠과 클립튼 비. 토마스—가 매주 그 기지에서 예배보는 것을 주관하도록 주선해 주었는데, 이때에는 알라스카에는 300명의 성도가 있었다.

이같은 추진력으로 그후 약 20년동안 빠르지는 못했지만 교회 회원은 착실하게 자라기 시작했다. 그곳에 정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라스카에 선교사로 왔었거나 군인으로 주둔한 일이 있던 말일성도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업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말일성도들의 개종에 이바지한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알라스카 이주민들 자신의 성격에 있다. 대체로 미국의 제 49번째 주에 개척자로 온 사람들은 친밀성이 있고 마음이 넓고 집착심이 없다. 그들은 가혹한 일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회로부터는 격리된 상태이다.

이래서 그들은 교회에서 보낸 사자들의 말에 더욱 잘 귀를 기울이게 되는것 같이 보이며, 이 사자들도 역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활동적이고 사귀기 쉬운 사람들이다.

알라스카 주민의 약 6분의 1은 에스키모 족으로 그들은 선사시대에 아시아로부터 건너온 사람들과 인디안의 후손이다. 1946년에 선교사들이 특별히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소집되었었다. 전 알라스카 캐나다 선교부장 스튜어트 듀어랑 장로에 의하면 레이먼드의 칩레로 그 선교부에 몇 사람의 훌륭한 지도자를 확보케 했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는 교회 건립에 힘을 기울인 사람, 복음 선교사 및 보조조직, 신권회 지도자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인디언 세미나리가 설립되었고 많은 인디언 자녀들이 인디안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 광막한 지역에는 포장된 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행한다는 것은 선교 사업에 큰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가장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사실 다른 어느 주보다 알라스카주 사람들이 개인 소유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한다. 비행기 착륙장도 현대식 공항으로부터 동결된 호수, 진흙밭, 자갈밭, 나무없는 공지, 또한 수상 비행기가 사용하는 하천, 호수, 항만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회원이나 지부는 시골 구석에 까지 산재하고 있다. 코디액 고펠 세계 굴지의 어장이 있는 코디액 섬에는 근 170명의 회원을 가진 큰 지부가 있는데 회원은 대개가 군인 출신과 그의 가족들이다.

알라스카주 동남부에 있는 아넷도에는 24명의 회원이 있다. 몇년전 선교사들은 다른 교회에 의해 이 섬에서 쫓겨났는데 그들 말을 빌리면 이 섬은 인디안에게 주어진 곳이며, 그들은 다른 종교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인디안 추장의 딸과 결혼한 그곳의 회원들이 활동케 했고, 자기 처와 장인의 힘을 빌어 선교사들이 또 다시 이곳에 들어오도록 허락받게 했다. 그들은 가호 방문 전도는 할 수 없었지만 회원들이 자기 집에 그들의 친구를 초대하여 그곳에서 장로들이 가르키게 해주었다.

앵커리지와 웨어뱅크등 도시에서는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다. 1961년 8월 13일 1850명의 회원으로 알라스카 스테이크가 조직 되었다. 그리고 꼭 5년 후에 아름다운 알라스카 스테이크 센터가 헌납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스테이크가 조직되던 그 당시의 거이 두배나 되는 회원이 있다. 앵커리지에는 네개의 와드가 있고, 웨어뱅크에는 하나 (1967년의 큰 수해가 난 후 두개의 와드가 하나로 통합되었음) 팔머시에 하나의 와드가 있고, 추기액, 델타정선, 이 일순 공군비행장 등에 지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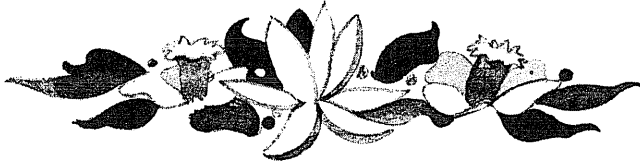
지부의 회원수는 주노 449, 쏘다나 359, 케치칸 273, 코디액 167, 시카 100, 호머 93, 스와드 42, 아넷드 24, 그리고 알라스카 지방부 358이다. 이 지방부는 너무 외진 지역에 떨어져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모임에 참석 못하는 회원들 까지 포함하고 있다. 앵커리지에 주재하고 있는 해롤드 브이. 윌터 지부장은 편지와 아이스 부레이커라는 작은 신문을 통해서 그들과 통신하고 있다.

많은 와드와 지부가 완성되었거나 현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중이라,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케치칸에 있으며, 그 건물은 큰 가정집 처럼 보이게 건축되어 있어서, 더 큰 교회를 세워야 할 때가 이르면 곧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앵커리지 남쪽의 케나이 반도는 값비싼 원유를 연안해 중에서 발견한 덕택으로 대확장의 파동이 일고 있다. 알라스카주 승격 일년 전인 1958년에 쏘다나에서 최초로 말일성도 주일학교가 세가구로 조직되었었다. 꼭 10년 후인 1968년 7월 2일에는 약 300명의 교인이 신축한 쏘다나 지부 예배당에 모여 12사도 정월회의 리그랜드 리차드장로의 헌납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번영하고 있는 이 지부의 기성 회원들은 그들의 제이단계의 건축 계획을 세우고 있다.

코디액에서 케치칸까지, 노움에서 스와드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교회원이 발견되는 곳에는 현대식 개척 정신이 엿보인다. 극단적인 일기, 극단적인 명암 (여름에는 22시간이 낮이고 겨울에는 22시간이 밤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돕기 위하여 서로 모여 일한다. 황폐를 가져오는 지진과, 조류가 몰고 오는 큰 파도와 홍수는 희생자를 내게 했지만, 파괴된 것은 수리되고, 가옥과 교회는 재건되며, 사람들의 유대는 더 강해진다. 초기의 이주민을 낙망케 한 첫째 요인이 오늘날의 알라스카 사람들 서로 밀접하게 협력케 하고, 교회와 알라스카 회원 들에게 큰 은혜와 힘을 가져 오게 하고 있다. ○

영감을 주는 사랑



리드 에이취. 프렛워드

●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품고 있는 최상의 목표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잠재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여러분이 지식과 이해력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여러분이 구원과 영생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깨달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잘못을 참을성 있게 대합니다. 그의 목적은 당신과 같이 되려는 것이나, 서툴다고 화풀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악이나 과오를 범하였으나 용서를 빌면 그는 마음에서 울어나는 용서를 허락해 줍니다. 그 자신이 또한 여러분이 보다 훌륭한 행동에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하여 스스로 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구세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를 설명할 예는 허다합니다. 아래 성구가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마가 : 10 : 17, 49—23)

또한 예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신적도 있습니다.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 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 하느니라.”(교성 58 : 42) 주께서 누누히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예수 자신이 경험하는 것

과 꼭 같은 평화, 안정, 성장,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종류의 사랑이 곧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경우에서 이러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알아 봅시다.

자니 링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자니 링고에게 부탁해서 찾아내게 하고, 그에게 흥정을 하도록 맡겨 두시오.”라고 센킨은 응접실 베란다에 앉아서 나라분디를 방문할까 망서리고 있는 나에게 충고해 주었다.

그는 수수료 4배 이상을 받지만 자니 링고는 물가를 잘 알고 있어 장사를 잘 합니다.”

“자니 링고!” 베란다의 계단에서 있는 포동포동 살아 쥔 소년이 그 이름을 소리쳐 부르면서 못견디겠다는 듯이 날카롭게 웃어댔다.

“조용……” 하는 자기 아버지 소리에 웃음 소리는 멎고, 다만 작은 등을 들먹이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자니 링고는 태평양의 이 지역에서는 가장 날센 장사꾼이지요.”

이 한마디에 그 소년은 웃음을 참다 못해 하마트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뻔 했다. 가까이 서 있던 동리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 오르기 시작했다.

“어쩐 일입니까?”라고 나는 물어봤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니 링고와 거래 해보라고 말하고서는 그 만입니다. 이게 무슨 속임수인가요, 들 오리를 쫓아가란 말인가요, 왼손잡이나 할 것을 하란 말인가요? 자니 링고는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제일가는 바보라 말인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나도 알기나 합시다.”

“농담이 아니예요.”라고 센킨이 말했다. “자니 링고를 만나서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충고이니깐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지요. 다섯달 전 가을 축제에 자니가 키니와다로 와서 색시 감을 암소 여덟 마리나 주고서 아내로 마지했다는 거요. 글썄!

그는 암소 여덟 마리라는 말을 매우 엄숙한 어조로 말했고 나도 이 섬 사람들의 풍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암소 두마리나 세마리면 보통 혹은 그 이상의 신부를 살 수 있고 넷이나 다섯이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신부감을 고를 수 있었다.

“정말이요?” 나는 이렇게 외쳤다. “여덟 마리라고요! 그 신부는 한번보면 숨도 못 쉴 정도의 미인이겠군요.”

“글썄요. 뭐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며 나의 반문에 기분좋은 듯이 미소를 띄면서 말을 이었다. “가장 친절할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사리타를 보고 보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체격이 작고 빠쩍 말랐고……늘 머리를 움추리고 등 뒤에라도 숨으려는 것처럼 어깨를 올리고 걸어 다녔지요. 안색이 좋지 않고 눈 한번 크게 뜨는 일 없고 머리는 엉클어진 걸레 뭉치처럼 늘어져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요. 그 여자는 자기 그림자만 보

아도 무서워했고 자기 목소리 듣는 것도 무서워 했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애기도 못했고 웃지도 잘 못했으니까요. 다른 여자 아이들과 한번도 장난치고 노는 일이 없었으니까 남자를 낚는 기회도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자니를 얻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래가 한창인 전막으로 가는 도중 사촌 형제들은 썸이 좋은 결말을 맺도록 독려해 주었지요. 암소 세 마리를 요구하시오. 그리고는 그가 한 마리로 의견을 말해 오거든 두 마리 내라고 버티시오라는 식으로. 그렇지만 그는 너무 초조했고 짜리타가 결혼할 이번 기회를 놓칠까 봐서 아무리 적게 준다고 해도 오래 끌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암소 한마리만 받기로 변경하고 그 대신 짜리타에게 좋은 남편이 만나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때 자니가 천막 속에 들어 와서는 한마디 말도 듣기 전에 썸카루에게 똑바로 가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짜리타 아버지, 맥의 따님과 혼인을 승락해주시면 암소 여덟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썸은 놀리는 줄 알고 그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니는 매달려 늘어지면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사촌들은 자니가 머리가 돌은 것이니 본정신으로 돌아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암소를 정말 보내 주었나요?”

“당장 보냈지요... 그날 밤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식이 끝나자마자 자니는 초심으로 짜리타를 데리고 와서 결혼 제일주를 보냈지요. 그리고서 나라분디의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 우리들은 한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지요.....”

“암소 여덟 마리라”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말했다. “한번 자니 링고를 만나보고 싶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그말입니다. 당신은 여러 가지로 자니를 만나 보셔야 할거예요.”라고 집주인은 웃는 낯으로 말해주었다.

나는 낚시질도 하고 싶었고, 채소도 사야 했고, 진주도 샀으면 하던 참이라 다음 날 오후 나라분디 해안에 배를 대었다. 나는 동리에서의 자니의 인기를 눈치 챘다. 내가 방이 다섯이나 되는 자니의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을 때, 그는 이름을 듣고도 입을 삐죽이는 사람이 없었으며, 눈을 찡긋해서 비웃는 표정을 보이는 사람도 없었다. 내가

만난 날씬하고 성실한 이 청년은 내가 마치 집주인이 된 것처럼 느낄만큼 나를 환대해 줄 때 나는 그가 자기 동리 사람으로부터 비웃음의 대상이 아닌 참다운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행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그의 집 아래 방에서 대나무 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고기 잘 잡히는 곳과, 채소 파는 곳 그리고 진주 도매하는 곳으로 나를 안내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한마디 물어 보는 것이었다 “키니와타에서 오셨나요?”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그곳에서 당신을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들었노라는 말까지 했다.

“그 섬에서는 제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지요?”

“그렇더군요. 그 곳 사람들은 당신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사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그는 점잖게 웃으며 “나의 처도 키니와타 출신이지요.” 라고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처 얘기 많이들 하지요?”

“네, 줌...”

“무어라고 말 하던가요?”

“글쎄요, 그저...” 이 질문에 나는 좀 난처했다. “당신 부인의 이름과 장인이 누구라는 것 그리고 당신들이 지난 가을 축제 때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다른 얘기는 없었나요?” 그의 눈동자 돌리는 모습으로 그외에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혼인하기 위해서 암소 여덟 마리나 바쳤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군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점차 질문의 골자로 접어들어가는 얘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더군요.”

“그래요!” 그의 눈은 기쁘듯이 빛났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확인하려는 듯이 말했다. “키니와타에서는 누구나 다 내가 암소를 여덟 마리나 낸 것을 알고 있지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또 이곳 나라분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이 가슴을 펴고 말을 계속했다. “언제던지, 또 언제까지나 혼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자니 링고가 싸



리타를 얻기 위해서 암소 여덟 마리를 냈다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고작, 그것이 대답이었구나, 나는 몹시 낙담했다. 신비하고 놀랍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저 허영심 때문이었구나! 자기의 자존심을 만족 시키려면 제일 영리하고 힘세고 민첩하다고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모양이다. 그는 자기 부인을 사오는 방법으로 자신을 유명케 했어야만 되었던가. “키니와타에서는 당신을 바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다.

바로 그때 나는 그여자를 보았다. 동근 방문을 가리고 있는 유리 구슬 휘장을 통해서 나는 그 여자가 옆 방으로 들어 와서 식탁 위에 꽃 바구니를 놓는 것을 보았다. 그 여자는, 잠시 조용히 서서 내 옆에 있는 젊은이에게 상냥하고 정숙하게 미소를 짓고는 곧 나가 버렸다. 그 여자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중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다.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던 소녀의 미모로도 따를수 없었다 사실 그 소녀도 지금은 값싸고 천하고 세속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이여자는 하늘에서 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자연의 본질에서 나온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 여자의 윤나는 검은 머리에 핀으로 꽂은 새 이슬방울 같은 꽃은 그 여자의 두 볼을 더욱 빛나게 했다.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두어깨, 기울어진듯한 턱, 그리고 빛나는 두 눈동자 모두가 자랑의 대상이었고 아무도 그 여자의 이점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여자가 몸을 돌려 나가려 했을 때 그 여자의 동작은 너무도 우아해서 여왕같이 보이게 했었다.

그 여자가 보이지 않게 되자 나는 자니에게로 돌아왔었다. 그랬더니 그 여자를 자랑하려는 것 같아 보이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라고 그는 나즈막히 말했다.

“저 여자분은 천사같은요. 누구인가요?”

“제 처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쳐다 보았다. 이것도 내가 아직 들어보지 못했던 이곳 풍속이란 말인가? 그가 암소 여덟 마리를 치른 대가로 짜리타와 또 이 여자를 샀단 말인가. 내가 물어볼 말을 찾기도 전에

“바로 짜리타예요.”

“하지만 그는 키니와타에서 온 짜리타는 아니지요?”라

고 내가 말했다.

“짜리타는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태도에는 그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해 주고 있을 것 같았다. “아마 당신은 키니와타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하던 그 여자와 지금의 그 여자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 여자의 외모에 대한 충격으로 나는 어리둥절 했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여자는 가정 부인 타입으로 별로 특이없는 사람이었지요. 그곳 사람들은 모두 당신이 썸 카루에게 속아 넘어갔다고 조롱하고 있오.”

“맥에서도 그가 저를 속였다고 생각 하십니까? 암소 여덟마리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머리를 흔들자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띠우면서 “멀지않아 봄 축제가 오면 키니와타로 짜리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만나보고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짜리타를 볼 수 있겠지요. 그때 가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천만에.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가 없군요. 어떻게 그 여자가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여자가 키니와타를 떠난지 다섯 달이 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 여자도 변한거죠. 특히 그 여자가 떠난 바로 그날 많이 일어났지요.”

“그 여자가 당신과 결혼했다는 말씀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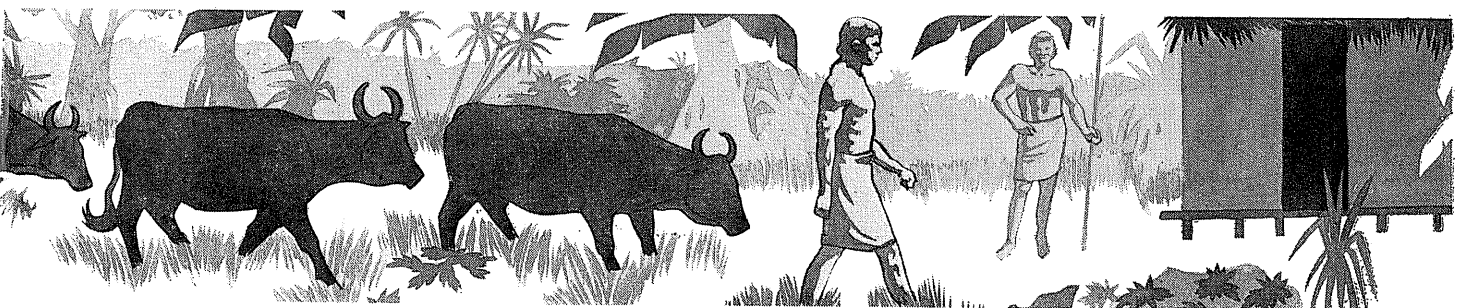
“그말도 옳습니다. 허지만 무엇보다도 결혼 때 치른 대가입니다.”

“대가라니요?”

“자기 남편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만나서 값을 되도록 적게 내고 자기를 사가려고 흥정하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는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후일에는 부인네들은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혼인 때 얘기를 하며 자기 남편이 얼마를 내고 자기를 데려갔는가를 자랑합니다. 어떤 여자는 암소 네마리라고 말할 것이고 여섯마리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겠죠. 단지 한 두마리에 팔려온 여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짜리타에게만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지요. “그러면 오직 당신의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전례없는 대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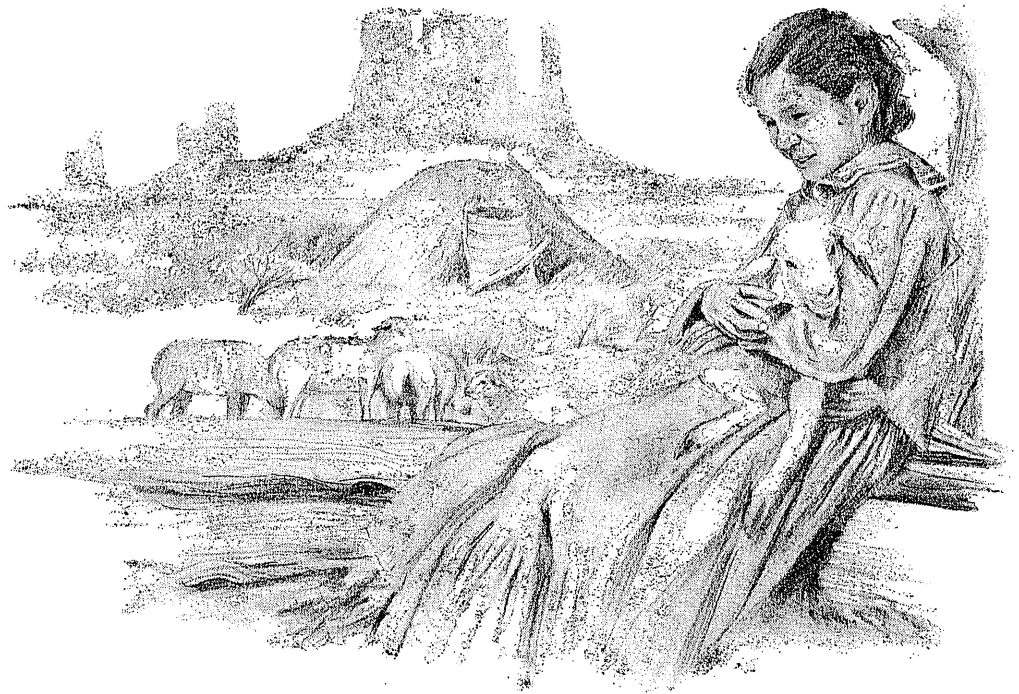
<21p에 계속>



손을 잡고서

● 남서부 인디안 선교부에서의 일이었다. 어느 무더운 여름 날 두 젊은 선교사가 소형 화물 자동차에 몸을 싣고 아름다운 아리조나 사막을 횡단하려고 출발했다. 그들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뻐했다. 골짜기를 지나자 수많은 곳에서 송나무 숲의 깔때기 모양으로 작은 회오리 바람이 일며 먼지를 날리는 것도 볼 수 있었다. 길 가에는 나바호 족의 어린 여자 아이가 몇 마리의 양떼를 지켜 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밝은 푸른 색 벨벳의 부라우스와 발목까지 닿는 화려한 치마를 입고 있었다.

맥스 비. 엘리엇



선교사들은 물몬경의 역사와 인디안의 전설이 같음을 발견한다.....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튼튼하게 생긴 자동차를 타고 곧 제일 처음의 호간—큰 흙더미 같이 보이는 인디안의 집으로 문과 작은 창문이 그 속에 하나씩 달려 있다—에 닿았다. 좀 떨어진 곳에서는 호간과 땅을 구별하기 힘이 들었다. 장로들은 호간으로 걸어 가면서, 나무 그늘에 매여 있는 마차와 두 필의 말을 보았다. 그들은 또한 버들 나무 그늘집 —“카오”라고 함—에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양탄자를 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선교사들이 이 조그만 집의 작은 문을 두드리자 나바호 말로 들어 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선임선교사는 이년 동안이나 이들 훌륭한 나바호 사람들과 일해 왔으나, 그는 지금 까지 이들의 집을 찾아 갔다가 초대되지 않은 일은 한 두번 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

장로들이 호간에 들어가서 나바호 노인의 인사를 받았는데 그 노인은 정신적 지도자로 나바호 말로는 “하타아티이”, “찬터” 또는 “싱거” 등으로 불리워 지고 있지만, 백인들은 그를 약제사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그는 친근하게 자기 가족을 불러 모아서 장로의 이야기를 듣게 했다. 그들은 모두 호간 안에 둥그렇게 앉고, 상석에는 장로들이 앉게 했다. 이 상석은 손으로 짠 아름다운 양털담요가 깔려 있었고 땅바닥의 좌석 보다 약간 높았다. 가족은 조용히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선교사가 물몬의 이야기를 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안에서의 모임은 찬송가로 시작되고 후임 선교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서 선임 선교사는 하타아티이 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나이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 하니 자신이 너무 어리고 초조해 지는 감을 느끼면서, 그가 준비한 물몬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그림을 가방에서 꺼냈다.

이 젊은 선교사는 나바호 말로 리하이에 관해서 가족들에게 말해 주었다. 리하이는 오랜 옛날에 자기 가족을 미대륙으로 데리고 이주했을 때 아주 훌륭한 기록도 함께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지구의 창조에 관한 것이 기록되었다는 말을 해 주었다. 선교사는 또 물몬경에는 구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가지 동일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는 또한 나바호의 선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가 탄생되었을때 그 표적으로 삼일 동안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 가셨을때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표시를 보았는데— 삼일간 어둠이 계속되고 많은 것이 파괴되고 지구의 전체 모습이 변화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후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아메리카에 있는 나바호의 선조들을 방문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며, 이들과 더불어 그의 참된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런 다음에 그는 다시 지상에 오겠다고 약속하고서 떠나 갔다는 말을 하고 이 젊은 선교사는 다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설명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사람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매우 사악해 졌다.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른 결과 니파이 백성 들은 레이만 백성에게 멸망당했다. 현대의 인디안은 이 레이만 족의 후손 들이다.

선교사는 요셉 스미스에 관해서와,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앞에 나타나심에 대해서, 또한 예수께서 요셉에게 지상에는 참된 교회가 없다고 하신 것과 따라서 그가 선택되어 즉시 교회를 회복하게 하신 것을 인디안에게 말해주었다. 그리고서 그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다. 즉 이 모든 것은 참된 것이고 물몬경은 참된 기록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참된 교회이며 예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지상에 회복되었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물몬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인디안 가족들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정신적 지도자인 그 노인은 특별히 깊은 관심을 표시하며 동의한다는 듯이 연상 머리를 끄덕이고 있었다. 선교사가 이야기를 끝마치자 이 정신적 지도자는 다음과 같이 흥분 해서 말했다. 「히히 비—호진 엘히히 하네」 번역하면 다음과 같은 뜻이다. 「우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입니다.」 그

그로 인하여 저들은 조상에 관하여 알게 되고 저들의 조상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다시 회복되리니

는 계속해서 나바호 말로 선교사에게 말해 주었다— 자기는 선교사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알고 있고, 그것은 자기네 나바호족의 이야기로 대대로 물려 내려 온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조금씩 다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이야기라고 말해 주었다. 그들의 선조는 금판 및 동판에 그 이야기를 기록했었다. 그러나 나바호의 이야기는 그

종족에게는 너무도 신성한 것이어서, 아무에게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 노인은 선교사에게 창조, 홍수, 산위의 구름 기둥이나 그리고 큰 칼 혹은 창을 가진 사람(그가 백인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에 의해서 지워 되는 갑옷을 입은 사람들과 그들이 전쟁하고 다투고 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십이사도의 이야기는 아주 똑같다. — 열두 사람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 나바호 노인은 12사도의 이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들의 이름은 매우 신중해서 겨울 철에만 부를 수 있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 인디언에게 전래되어 내려 오는 이야기 중에는 잘못된 곳도 있고, 거짓된 교리와 엉터리 이야기가 그 속에 끼어 들어간 곳도 있어 간혹 선교사들의 미소를 자아 내는

교육이란……인류를 돕는 것이다

만사는 보는 이의 견지에서



공과시간전

이것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며 또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크기가 거의 같은 두장의 그림. 하나는 세계 지도 또 하나는 몇 사람의 어린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 있는 그림——을 구합니다. 이 그림 뒷면을 고무 플로 붙여 잘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 토막 그림을 맞추는 놀이를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간단한 모양으로 오리십시오. 그외에 두장의 두꺼운 마분지를 준비해서 한장은 그위에서 토막 그림 맞추는 놀이를 하게하고 또 한장은 맞춰 놓은 그림위에 덮어서 뒤집을 때 토막 그림이 흩어져 나가지 않게 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활동은 집에서 연습해 본 사람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과 시간

책상 주위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조각난 그림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완전한 그림이 되게 합니다 이 때에 반드시 위에 토막 그림을 맞춰 놓게 합니다. 그들은 뒷면이 지도라는 것을 깨닫겠지만 아무 말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막 그림 맞춰 놓기가 다 끝나면, 조심해서 그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여 주십시오. (미리 뒤집는 연습을 안 하신 분은 이때 곤란할 것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음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1. 젊은 사람들과 이 세계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2. “젊은이들을 단결시키라. 그러면 세계는 잘 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3. 이 세계를 모든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때도 있었다.

이 젊은 선교사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을 불러 일으킨 경험이었던가! 나바호 노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충만해 있음을 느꼈다. 그 노인이 자기 민족의 역사와 인디안의 관습을 말해주고, 또 인디안 이야기와 물몬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부합되어 나가는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 동안 여러 시간이 마치 몇분간과 같이 지나갔다. 정말로 그것은 “신성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나”(이사야 29 : 4) 오는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호간을 나와 그들의 차 있는 곳을 향해 먼 지투성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아직도 그들

주변에 있음을 느꼈고, 그들이 이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게 된 것이 훌륭한 기회라고 모두 다 생각했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약속한 바와 같이 인디안들이 언젠가는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며 그로 인하여 저들은 조상에 관하여 알게 되고, 저들의 조상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다시 회복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는 축복임을 알게되어 기뻐할 것이요. 어둠의 비늘이 저들의 눈에서 걷히기 시작하며 여러 세대가 지나지 않아 저들은 빛깔이 희고 사랑 받는 백성이 되며…….” (니파이 2서 30 : 5,6) ○

이달의 주일학교 성찬식 전주곡



이달의 성찬식 성문봉독

장년 주일 학교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 : 32)

유년 주일 학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 : 27)

주일학교 성구암송

야고보반

“그 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서 29 : 18)

기초교리반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은 참된 것인지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실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모로나이서 10 : 4)

계보상의 새로운 거인—GIANT 제도



● 1968년 10월에 열렸던 교회 반 연차대회에서 신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로서 성명 제출 과정에 변화를 가한 제도가 소개되었다. “거인”(GIANT : Genealogical Information And Name Tabulation 계보상의 지식과 성씨도표) 이라고 불리는 이 개정된 방법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몇가지 의문점을 불러 일으켰다. 이제는 더 이상 계보 탐구를 할 필요가 없느냐고 문의해 오는 회원도 많았다. 그들의 “계보위원회”가 모든 일을 다하고 성도들은 단지 “계보위원회”에서 성씨의 도표를 완성할 때 까지 기다렸다가 완성된 기록을 가지고 신전에 나가 의식을 마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거인 제도를 소개하는데 있어 교회의 교리에는 하등의 변화도 없다. 이 변화는 수속 절차에 변동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보다 간소화하여 신전 사업을 위한 성명 제출을 돕자는데 뜻을 두고 있다. 성도들은 각자 필요한 탐구를 계속해야 하며, 도표화된 성씨는 성도들 자신이 수집하여야 한다. 거인 제도는 이것을 더 용이하게 해주지만 자기 자신의 조상이나 죽은 친척의 계보를 연구하는 책임은 역시 회원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의 교리는 말일성도는 누구나 죽은 자기 조상이 누구인가 확인하고 신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그 일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서 지상에 있는 확인된 모든 가족이 그들을 위하여 시행되는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본 거인 제도는 성도로 부터 이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계보위원회”는 도표 계획에 따라 교구나 기타 동기소에서 발견되는 개인의 성씨를 도표화 하는 일을 돕기는 하겠지만, 이 일은 앞에 놓여 있는 큰 일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개인 등록 양식은 교회 회원들이 이 도표와 계획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이러한 사람을 위한 신전 의식은 올바른 생활을 함으로써 자격이 부여된 사람에 의해서 완수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을 마친 사람은 자기 선조의 계보에 포함시켜 완전한 기록서 작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 방법에 의해서만 모든 회원의 신원이 확인되고 이 일이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거인제도에 의하여 크게 편리해 지기는 했지만 이 제도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 자신이 이런 것들을 찾아 내야 하며 되도록이면 가족을 단위로 작성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가족이 천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인봉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위한 구원의 교리속에 있는 위대한 원리는 세상을 떠난 조상과 살아있는 후손과

의 사이를 연결하는데 있어 아버지나 아들중(조상과 후손) 어느 누가 없어서도 안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거룩한 계획은 선조나 후손도 혼자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필수적인 이 결합은 사망한 친척을 위해서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집행되는 대리 침례와 승영의 의식을 통해서 달성된다.

거인 방식은 이 사업의 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성도들은 가족 전체가 신전 의식을 받기 위하여 하나의 집단으로 제출되기 전에 전 가족을 완전히 집단화 할 수 없을 때에는 한사람 한 사람씩 아는 대로 개인별로 일을 해 나가도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은 가족 단위로 집중되어야 하고 계보 연구를 위한 노력은 더욱 계속되어야 한다.

계보에 관한 교리는 생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에 의해서 제시된 것과 동일한 것이다.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자기 책임에 대한 의의와 권능을 깨달아 각자 주관하고 있는 정원회의 회원들에게 이 일을 추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부장, 신권회 계보 담당 고등 평의원, 그리고 대제사 신권소유자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더 큰 열의와 자질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교리를 계속 전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일은 많이 있다. 죽은 사람을 구제하는 이 사업은 곧 구세주가 오시게 될 세상을 준비하는 일이다. 인자가 재림하시기 전에 구원의 사업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름의 제출에 대한 거인 방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속죄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목적에 모두 다 참여하기 위하여 수속 절차를 간소화시킨 일보 전진한 방법인 것이다.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기꺼이 마음속에 받아 들이고, 승영에 필요한 승리의 대가를 치른다면, 속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승영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살아 있는 성도는 이 대계획을 함께 수행해 가야 하는 동반자이다.

(주의 : 태평양 지구에 거주하는 회원으로 기록서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기록서 제출 지침서”에 명기된 예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폴리네시아 및 동양인에 관한 기록은 추후 발표가 있을때까지 현재 사용중인 가족 기록서를 그대로 사용한다.)

“거인” 제도는 태평양 지역에서 구라파 선조를 위한 신전 의식을 희망하는 회원이 하여 “개인 기록 양식”을 이용 성명을 제출할 때에만 사용한다. ○



현세가 아니면 영생에서

헤롤드 비. 리

십이사도 정원회

• 상호 부조회 본부 회장단의 요청을 받아 이 짧은 글을 쓰면서 우리 교회 회원들 간에도 여러번 되풀이하여 이야기된 바 있는 실화 두가지를 주제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선교사에서 귀한한지 얼마 안되어, 나는 어느 헌신적이고 신앙이 두텁던 전임 선교사의 장례식을 사회했었습니다. 고인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기심이 없고 헌신적이고 성실한 교사이었고, 누구 보다는 참된 교리를 실천해 왔던 분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불치의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분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오자 자신이 죽은 다음에 이행할 추도식에 대한 것을 상세히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럼으로 이 성스런 의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나도 그랬지만 각자가 그 여성의 길지 않은 인생의 서로 다른 일면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였는데, 이리하여 그 여성은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절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선교사로 일하던 당시를 회상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분이 부리감 영 대학을 졸업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곳을 떠나기 바로 전에 한 축복사로부터 아주 훌륭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특별한 축복은 이미 다 실현되었으나 다만 한 가지만이 이루어 지지 못해서 나는 왜 이 축복만이 성취되지 못하였나 하고 늘 마음속으로 괴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 분은 이 지상에 산 어느 사람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다 더 가까운 생활을 해온 사람은 아

무도 없는데, 어찌해서 이 최후의 축복만이 그 분에게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그 축복사를 통해서 주께서 그 분에게 주셨던 축복은 그 여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육신의 생애에서 어머니가 된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 추도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하는 풀길 없는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 어느 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의 아픈 심정에 위로를 받고 신앙심을 복돋울 수 있는 빛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알아 보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군 당국으로 부터 불길하고 간절하게 기록된 전보를 받았는데, 그 전보는 사랑하는 젊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교회 선교사 근무를 마치고 귀환하자마자 군복무의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도 역시 집을 떠나기 직전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그가 여러 아들과 딸의 후손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진실로 영감에 찬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생활을 했음이 분명한 그 아들은 어찌해서 이 축복을 받지 못 하였을까요?

먼저 번의 경우에 대한 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스테이크의 축복사이고 전의 스테이크부장이었던 분이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두가지 중요한 원리가 매우 잘 기술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삶」이란 육신의 출생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축복사가 영감을 받은 축복을 말 해 주는 경우는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육신 생활이라 일컫는 면만을 가르키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 뿐이면 모든 사람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고전 15 : 19)라고 바울 사도는 기록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에 의혹을 느끼게도 됩니다. 무덤 이후의 일 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때가 오면 모든 일을 적당하게 균형을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앨마서 32 : 21)고 예언자 앨마는 기술하였습니다.

그 축복사가 설명하기를 이 신앙이 강한 자매는 육신 생활에서는 어린애를 낳는 은총을 받지 못했지

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전에서 신성한 의식을 통하여 훌륭한 남편과 같이 인봉되고 이런 인봉은 만약 영이 동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육신의 세계를 초월한 세상에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성스러운 결혼을 허락해 주시겠고, 이로써 내세에서 자손을 갖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결혼을 성약하시고 영원히 이 결혼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계시로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신 것은 영원한 번성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저마다 자기 머리에 결봉된 대로 자기 승영에 이르러 온갖 일에 영광을 누리리니, 그 영광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되는 것이니라.” (교성 132 : 19)

이 계시를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인듯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세계에서 신권의 능력과 권능으로 결혼하고 성신에 위배되는 죄를 범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번성하여 해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손을 갖게 된다.” (교회정사, 제5권 391 페이지)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바와 같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을 떠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결과에 관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교하셨습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벧전 4 : 6) 간단히 설명하면 이것은 주님의 신전에서 권능에 의해서 수행되는 대리 의식을 받아들이고 내세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이 죽은 다음에 그들을 위해 수행되는 의식은 그들이 살고 있을 때와 똑 같이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말이 옳지 않다면 주께서 결정 시기에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고 설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는 “지옥의 문”이 더 우세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생활을 하고 죽은」 성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된 대리 의식이 없다면, 주님의 속죄의 희생에 관한 충분한 사명은 위에서 인용한 경우나 혹은 인용될 수 있는 많은 유사한 경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정도로 까지 넓혀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선교사 자매님에게 약속받은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은 충실한 아들의 부모 되시는 분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택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택하는 시기에 모든 일을 다 합당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해야 할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나는 성실한 자매를 위한 글을 쓸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들 자매는 대개가 아직 육신의 생

활에서 여성들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이 글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을 다소 가감하여 다시 되풀이해 보는 것도 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연령은 다 되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젊은 여성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주님의 집으로 갈 수 있을 만큼 가치있고 준비가 되어있으면, 그리고 이 신성한 원리 (영원한 해의 결혼에 관한)를 믿고 있다면, 비록 현재의 육신 생활에서 결혼할 수 있는 은총은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때가오면 결혼이라는 보수를 내려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자기가 받게 될 축복을 행여 받지 못하거나 앓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자신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의 청혼을 수락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우연한 사고나, 극심한 질병, 전쟁의 무서운 전투 등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인생의 초기에 생명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바라던 것을 알고 계셔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신전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알빈 형제를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상기하실 것입니다. 그의 형제인 알빈은 1824년에 이 생애를 떠났는데, 그 때에는 교회가 조직도 되기 전이었으므로 요셉은 어쩔

게 그가 해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나하고 기이하게 여겼었습니다. 바로 그 때 주님의 목소리가 그에게 들려 왔습니다.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알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들이 좀 더 생존 했더라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계승자가 되게 하노라. 왜냐 하면 나, 주는 만인을 그가 한 일에 따라서 그의 마음 속으로 바라는 것에 따라서 심판하겠으니.” (교회정사 : 380)

알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받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규칙에 쫓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바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줄 보수도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내의 형제와 자매의 수가 숫자 상으로 볼 때 매년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나에게서 의미 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한 일치에 지나지 않으며, 그 사실은 다만 통제 원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어 모든 남녀 교회 회원들이 이 육신 생활을 하는 동안, 이곳 교회 안에서 동반자를 찾아낼 수 있게하고, 이후에는 영원한 결혼을 통해서 그의 축복이 충만한 약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는 까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9페이지의 계속〉

냈습니까?”

“행복요?” 그는 그 말의 뜻을 시험해 보려는 듯이 되풀이 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렇지요. 짜리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허지만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키니와타에 살 때 사람들이 기억하던 그 여자와 달라졌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정말입니다. 여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여러가지 있고, 그것은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여자가 자신에 관해서 생각하는 일입니다. 키니와타에 살 때에 짜리타는 자기가 아무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허지만 지금은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당신은 결혼하길 바랬군요?”

“나는 짜리타와 결혼하길 원했지요. 그 여자를 사랑했었으니까…… !

“허지만……” 나는 차츰 이해가 되어 가고 있었다.

“허지만, 나는 암소 여덟마리 짜리 부인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라고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매듭지었다.

예수의 사랑

주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나 딸이 될 수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기꺼히 지불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가능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특히 주님이 속죄하여 주신 것까지 포함하는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는 단지 남편으로서의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 여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딸로서 그 여자의 소망, 아버지로부터 얻은 선물과 가능성 등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 여자를 사랑했다면, 그 여자에게 가장 큰 무엇을 전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각 개인이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생활을 기쁘지게 해 줄 것이며, 그들은 서로서로 격려주고 조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를 잘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

관리 감독단 페이지

관리 감독이 젊은이에게 주는 말씀 :

간증

존 에이치. 반덴버그

● 현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19세기 초엽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자기 집에서 걸어 나와서 아직 벌채해 내지 않은 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하려는 목적으로 꼬불꼬불한 밭 도랑 길을 걸어 올라 갔습니다. 비록 그는 농가의 소년에 지나지 않았고, 교육도 별로 받지 않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써 그가 탐구하던 이해력이 “그에게 주어 짐”(야고보 1:5)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뒤이은 경험으로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있었던 신권과 그 열쇠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게 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요셉

스미스 이세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예언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사명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 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볼문경을 세상에 내어 놓았나니,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를 번역하여 동서 양대륙에 이를 간행하는 일에 매개체가 되어 이 책에 실려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복음을 세상의 네 모퉁이에 이르기 까지 전파하였고 인간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교리와 성약을 이루는 계시와 계명과 다른 많은 지혜로운 내용과 교훈을 세상에 내어 놓았고 또 수천의 말일 성도를 모아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여 지울 수 없는 영예와 명성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자 대부분이 그러하였듯이 자기의 생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써 인봉하였고...”(교성 135:3)

요셉이 그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지 약 150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는 말일에 난 주님의 예언자들이 수고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천의 젊은이들과 교회가 일체가 되어서 순수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벅세이저를 온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성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어 받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의 진실성에 관해서 부지런히 탐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요셉이 그러했던 것과 똑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터의 확실한 대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인 여러분은 성신의 힘을 통하여 복음의 회복이 사실이라는 간증을 얻기 위해서 똑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간증이 여러분에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것을 얻기 위해 애타게 갈구한 연후에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단지 소극적으로 원하는데서 그쳐야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기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인 팔리 피 프랫은 볼문경의 진리를 이해하려했던 자기의 욕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려는 생각으로 그 책을 펼쳐 그 책의 제목이 쓰여 있는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나는 그 다음으로 볼문경이 발견되고 번역된 과정에 관한 몇 사람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후 나는 한장 한장씩

그 내용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온종일 읽기를 계속했습니다.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므로 식사도 하지 않았고 밤이 되었으나 책 읽기에 열중한 나머지 졸리운 줄도 몰랐습니다.

“내가 읽고 있을 때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나는 그 책이 참된 것임을, 사람이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실로 나의 기쁨은 충만했고 나는 나의 생애의 모든 슬픔과 회생을 치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팔리 파커 프래트 자서전 P. 37)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기를 참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명백합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주님은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 하셨습니다.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교성 9 : 7~8)

주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지런히 연구함은 간증을 얻기 위해서 긴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연구는 신앙을 갖게 하고, 우리의 간증을 세워 나갈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증거라는 위에 신앙을 세우고 (히 11 : 1) 연구를 하면 그 증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있어 개인적 간증을 얻기 위해 둘째번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간증을 얻기 위한 이 단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요 7 : 16~17)

니파이의 예언자 엘마는 이와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시험해 보라고 공언했습니다. 즉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엘 32 : 27)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은 간증을 얻을 준비를 갖춘 사람에게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 같은 개인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레이먼과 레뮤엘이 좋은 실례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보고 듣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위대한 시험이 그들의 생애에 아무런 효험이 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간증을 얻기 위해서는 예언자 요셉 처럼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셉 스미스가 깨달았고, 수천명의 다른 사람이 확인한 바와 같이 주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 1 : 5)

부지런히 복음을 연구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여러분의 생활을 일치시켜, 기도로써 복음이 회복되었음은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적합한 시기에 여러분이 그 해답을 틀림없이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간증은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 습니다. 그러나 간증이란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교성 9 : 8)

한번은 이런 경험이 갖고 있는 힘과 진실성에 관해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만일 더 많은 증거를 원하면 이러한 일이 참된지를 알기 위하여 네 마음 속으로 내게 간 구하던 그날 저녁 일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이 일에 관하여 네게 평강을 말하지 아니 하더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을 줄로 여기느냐?” (교성 6 : 22~23)

복음에 관한 간증을 얻는다는 것은 교회의 모든 젊은 자매에게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다 더 위대하고 더 뜻 깊은 소유물은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백케이 대관장님은 젊은 시절에 간증을 얻고자 하시던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음을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프루브먼트 이라 1962년 9월호 628페이지)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젊은 형제 자매가 젊은 시절의 요셉 스미스나 데이비드 오. 백케이와 같이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증거를 얻으려는 욕망을 갖기를 바라며, 젊은이들 각자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규정하신대로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 생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개인적인 복음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앞을 내다보는 안목과 목표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간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권에 대한 책임과, 교회 활동, 가정에서의 가족들과의 관계, 남녀간의 교제,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면에서 더 큰 의미와 목표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윌라드 밋 롬니

● 내가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하려고 왔을 때, 나는 일선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연장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당시 그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나의 사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 다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물문경을 잃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요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교 사업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던 일에 관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것 뿐이었고, 참된 선교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경이로운 전체적인 모습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업은 인생의 다른 어느 것 보다는 나를 이룩해 놓았습니다. 선교 사업이란 현존하는 것 중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훈련 계획입니다. 즉 선교 사업에 나섰을 때 젊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자신의 말을 이해시키고, 그러한 일을 성취시키기에 노력하는 것에 자기 시간 전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등에 인생의 의의를 깨달

게 된 것은 여기서 선교 사업에 종사 함으로서입니다.

나는 전에는 복음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주 적었던 것을 놀라게 생각합니다. 실은 내가 많이 알고 있었다고는 해도 전체를 관망하는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란 과거에서나 현재에서 행복을 전해 주는 메시지이며 기쁜 소식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서 나는 복음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이루어졌음에 대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성공이란 말의 참뜻을, 즉 해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우리를 선택하시어 불러주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물질적이며 세속적인 것은 제이의 적은 가치 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나 중요한 것에 훨씬 더 치중할 수 있어 전에 어느 때 보다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스도는 만약 우리가 제일 먼저 그의 왕국을 탐구한다면 그 밖의 다른 것들은 모두 부수고 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겨우 스물 한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불란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조직,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도자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혹은 어느 때 내가 또다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능과 책임을 갖게 될 기회가 있을까요? 그리고 언제 또다시 내가 모든 나의 정력과 시간을 선교 사업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교 사업에 관한 가장 놀라운 일 중의 한가지 일 것입니다. 지금은 한가지 목적에, 즉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고국에 가면 학교, 직업, 결혼, 자녀에 관한 문제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걱정등을 하여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단 한가지 일 밖에 없습니다.

고국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는 나는 그것에서 떨어져 나가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 직면 해야 하고, 그런 환경에 대처해 나가기를 배워야 하고,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잘 대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사람들을 생각할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고국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해도 그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나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을 구했고, 그와 함께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그렇게 쉽게 단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접촉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단념해 버리는 것보다는 끝까지 상대하는 편이 되어야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극히 곤란했던 일을 이겨내고 승리의 맛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은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헤쳐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간증을 하고, 공과를 가르치고, 교도자를 개종시키기 위해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회원 문제로 복잡해졌을 때는 주님의 지도를 바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권유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낍니다. 사도와 함께 앓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환자를 축복하는 사도님의 말씀을 통역해 주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년차 대회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국에서는 친해지려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동지애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정이 너무 커져서 그들을 떠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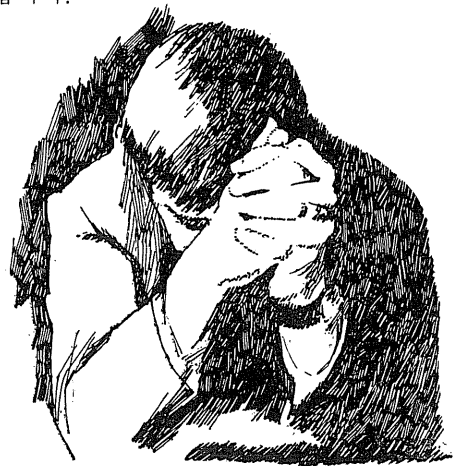


것은 가족과 떨어지는 듯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침 여섯시에 일어나 춥고, 피로하고, 건디기 어려울 때도 많지만, 이 세상 일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며, 다만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며, 다른 사람이 성공한 것을 듣고 기뻐합니다. 만약 내가 선교 사업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어디서 이런 것을 알게 되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만 시초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 합니다. 선교 사업은 뜻 바른 길을 가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그 길을 지켜 나간다면, 나의 기쁨은 2배, 3배 그리고 영원히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결혼생활, 교회에 대한 봉사, 어린이들, 세계와 조국에 봉사하는 이 모든 기쁨! 주님께서 이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임에 틀림 없을 것입니다.

■ 밋은 조지 롬니의 아들. 21세. 조지는 닉슨 대통령 내각의 주택 및 도시 개발성 장관입니다. 밋은 불란서에서의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양친에게 이상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본 편지자는 이것을 성도의 벼에 수록하도록 허락을 받았읍니다. ○



신권의 직분

리차드 오. 쿠크

● 주님께서 신권에 관하여 주신 계시 중에는 모든 직분은 벨기세텍 신권에 부속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성 107 : 2—5참조) 이것은 이러한 직분이 신권의 권위에 첨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신권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직분에는 각자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주님의 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권의 직분(다음에 토론함)과 교회의 직분을 구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신권을 받으면 파문을 당하지 않는 한 그것을 소유합니다. 신권 안에서의 직분은 안수례를 통하여 받는 것입니다. 한편 교회의 직분은 성별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그 직분에서 해임될 때까지 받게 됩니다.

감독의 직분은 신권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을 겸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을 받는 대제사는 감독으로서의 신권의 직분에 성임되고 또한 감독으로서의 교회의 직분과 그에게 주어진 와드의 관리 대제사의 직분으로 성별되는 것입니다. 해임된 후 그가 다른 와드로 이사하게 되어 또 다시 감독으로 불리우게 되어야 한다면 그는 재임명을 받을 필요는 없고 다만 새와드의 감독으로 성별될 뿐입니다.

대관장단

대관장단의 보좌는 교회의 대관장의 보좌로 성별된 다음에야 비로소 보좌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관장이 사망하는 경우 보좌들은 자동적으로 해임되고 대관장단의 정원회도 완전히 해임됩니다. 대관장단의 기본 정원수는 세명이지만 교회 역사상 보좌를 더첨가해서 보충한 경우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1837년에 요셉 스미스는 보좌들의 수를 늘였으며, 1873년 부리감 영은 다섯명의 보좌를 지명 했고, 현재 맥케이 대관장에게는 다섯명의 보좌가 있습니다.

아론 신권의 직분

아론 실권의 직분에 관한 특별한 임무는 교리와 성약 20편 46절부터 59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에 얼마나 잘 충실하였는가 주의해 봄

시다. 앞서 주어졌던 임무는 신권 소유자가 더 높은 직분으로 임명되었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은 각 직분의 필수적인 것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관리역원인 감독의 임무는 교리와 성약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8 : 17, 18. 68 : 14~27. 107 : 68~75)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예언자 혹은 대신권의 대판장이 있고, (교성 107 : 64, 65), 대신권의 대판장 밑에는 십이사도 정원회 혹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성 107 : 23참조)

이러한 지휘체제 밑에 대판장단과 십이사도를 지지하는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스테이크 조직의 머리가 되는 사람은 “상임 회장”이라고 불리워 집니다. (교성 124 : 134. 135참조) 상부 조직과 같이 각 스테이크에는 회장을 보필하는 12명의 평의회가 있는데 이회는 “상임 고등 평의회”라고 불리웁니다. (교성 107 : 36) 이 지도층 밑에는 “상임 교직자”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교성 124 : 137) 이 때문에 스테이크의 구조는 대판장단 이나 12사도 정원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상임 교직자로서의 장로의 주요한 책임은 지역적인 수준에 따라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124 : 137. 107 : 11, 12) 그는 또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아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성 84 : 111) 십이사도회와 같이 칠십인도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교성 107 : 25) 장로나 대제사 와는 달리 그들은 필요시에는 집을 떠날 준비비를 갖추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고 “순회 전도인”으로 행동하고(107 : 97), “순회 장로”(24 : 138. 139)로 선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행동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는 “상임 회장”이 되고 (교성 124 : 133~135) 부름을 받아 지방의 교회나 조직을 관리합니다. 어찌해서 “상임”이란 말이 지방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주요 임무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그 밖의 사람들을 말할 때는 “순회”란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가를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십이사도회는 지방의 스테이크에서 “상임 고등 평의회”(교성 107 : 36)와 대조적으로 “순회 고등 평의회” (교성 197 : 34)를 제정합니다. 이 모든 역원들은 “목사”나 “목자”라고 기록되는데 대체로 많은 나라에서 이 두 단어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축복사

축복사는 계시에서 “복음의 교직자” 혹은 “복음 전도자”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교성 107 : 39) 이런 제목은 복음을 의미하는 “이벤젤”(evangel) 이란 말에서 기인합니다. 이같이 축복사는 영감을 받아서 개인의 생활에 복음의 원리를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정원회

정원회는 그 회원들이 복음의 생활을 하고 신권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보다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돕는 조직입니다. (교성 107 : 89) 교리와 성약은 완전한 정원회의 규모를 지적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 규모를 늘려 가는데 대한 방법을 주의하십시오. (별도 도표 참조)

누구나 자기 임무를 깨닫게 하자

다음의 도표는 모든 신권의 직분이 1830년 교회 조직 당시의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예언자가 계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한 회복의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에 신권 협의회,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역책임자를 임명한 것은 현저하게 발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각자의 부름의 중요성을 확대 강화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84 : 33~41) 신권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며 자기에게 임명된 직책을 부지런히 완수하게 하라. ...”(교성 107 : 99)



신권의 제 직분



이론 신권 1829년 5월 15일 칙례자 요한에 의해 회복됨 (교리와 신앙 13; 교회정사 제1권 39, 40페이지)

직분	직	능	정원회	회복기일	참조
진사	경고하고 가르키며, 영만한 제책임을 맡음(20:59)	12명 (107:85)	1830년	디모데전서 3:8-13	
교사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다님 (20:53-58)	24명 (107:86)	1830년	에베소서 4:11 고린도전서 12:28	
제사	살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성임함 (20:46-52)	48명 (107:87, 88) 회장은 감독이어야함	1830년	히브리서 10:11 사도행전 6:7	
감독	엣날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관사로 임명되며 (58:16-18, 107:72-74) 속세에 관한 일을 모두 집행함 (107:68)		1831년 2월 4일	디모데 전서 3:1-7 디도서 1:7-9	
멜기세덱 신권 1829년 5월 15일 6과 30일 사이에 회복됨 [교회정사 제 1권 40-42페이지]					
장로	상임 교적자임 (124:137); 영적인 일을 집행하고(107:12), 성임하고, 안수 로써 성신을 부여하고 침례를 관리함 (20:38-45)	96명 (107:89)	1830년 4월 6일	사도행전 14:23 야고보서 5:14 베드로전서 5:1	
70인	순회장로임 (124:139); 부음을 전파하며, 이방인과 온 세상 사람에게 증인이 됨 (107:25)	70명 7명의 회장포함 (107:45)	1835년 2월 28일	누가복음 10:1	
대제사	상임회장임 (124:134), 스테이크와 와드를 관장하고, 영적인 일을 집행하고 (107:12), 속세에 관한 일을 집행함 (107:71)	정원이 없고 스테이크 내의 대제사 전원포함	1831년 6월 3-6일	히브리서 5:1, 2, 6 " 7:11 (두가지 신권이 명 기 되었음을 주의)	
축복사	영감의 축복을 통해서 부음을 선포하는 축복사(107:39-100); 직분은 "...아 바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전하여 내리 가도록..." 확인되어 있고, 선택된 사람 의 정통자손에게 부여되었고, 이 반치는 아담시대에 제정되었음 (107:40, 41)		1833년 12월 18일	사도행전 2:18	
사도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될 자들임 (107:23); 교회의 모든 다른 역원을 성임하며, 질서 있게 할 의무가 있는 순회 평의 원임 (107:58)	12명 (107:23, 24)	1835년 2월 14일	에베소서 4:11-14 마태복음 16:19	
대신권의 대관장	교회 대관장 (107:91); 대신권의 대관장이며, (107:65-67), 예언자이고; 선전자이며, 계시자임 (21:1, 107:92)				
교회대관장단 또는 대신권의 대관장단	교회의 대관장단인 정원회를 구성하고 (107:22); 교회의 신권의 업무를 관장하며 (90:13, 112:30), 12사도회를 관장하고 (107:33), 양육의 열의를 보유함 (81:2)	3명 관장하는 대신권 자(이) 외에도 평의원 이 정원회를 돕기 위 해 임명될 수 있음)	1832년 1월 25일 (최초의 대관 장단은 1833년 3월 18일에 조직됨)	에베소서 2:19-21	

교리와 신앙에서 참조.

신약에서 참조

성찬식에서의 성약

선교부장 서 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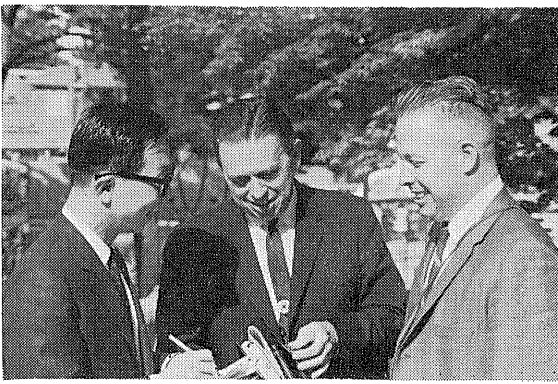


사진 좌로부터 이 호남 형제(제1보좌), 선교부장, 데이 형제(제2보좌)

● 우리는 매 주일 성찬식에 참여하여 성찬을 들 수 있는 특권을 하여받았습니다. 축복된 빵과 물이 전달되면 먹고 마십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식에 참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9)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지부에서 갖는 모임 중 가장 엄숙하고 성스러운 성격을 띤 모임으로 세심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부장단은 이 성찬식이 유익하고 교훈적인 모임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찬송가나 노래를 택하여 부르는가를 살피며 나아가서는 모든 회원이 성찬식 참석의 중요성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성찬식을 갖는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상기하며 왕국 교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진능하신 분을 찬송으로, 기도로, 설교로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취하는 성찬을 얼마나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틀에 박힌 예배 의식을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빵과 물이 축복, 전달되는 때에 다른 생각에 잠겨있지 않는지요?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성약의 말씀은 구속주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들면서 침례 때 주님과 나눈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독생자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며 그가 주신 계명에 따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육신의 몸을 위하여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지게 할 영의 양식을 구하여 얻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영의 배고픔을 느끼니까? 매주 후회하며 용서를 바라야 할 일을 자주합니다. 성찬식 모임은 곧 자신을 검토하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의 생활을 바로 잡고 교회가 가르치는 원리에 순응하여 살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성찬식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심판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찬 순서를 빨리 마치고 조금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성찬을 든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며,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성찬이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의미를 알려면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며 그를 믿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마다 영생을 맛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불한 대가는 지나

치게 미소한 것이 아니었나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지않습니까? 대의를 위하여 자녀를 희생으로 삼아야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아들을 월남의 싸움터에 보내 이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딘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야 했던 희생의 아픔을 짐작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쳐야 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으로 삼아야 했던 쓰라림을 저희에게 설명하려 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번째로 드릴 장소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겠지만 여행 준비를 마치고, 아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여행, 그것과도 작별을 고하고, 번째드릴 준비를 다 하고 난 다음 아들 이삭을 축복하여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해서 번째를 막으셨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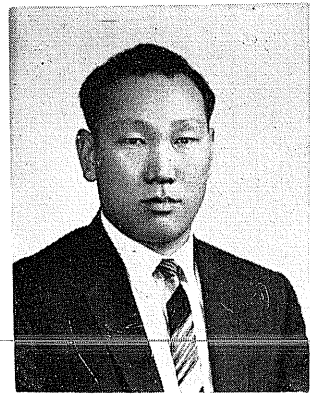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이러한 아픔을, 아니 더한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하나님의 손을 멈추게 할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다. 왜냐하면 신뢰와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세상을 함께 사셨고 게다가 충실하고 진실한 아들이었으니 말이다. 수 많은 무리가 존경을 표하는 영광과 신뢰의 자리를 떠나 이 지상에 내려보내 인간의 모욕과 가시관을 쓰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고뇌와 번민에 빠진 죄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중은 어떠했을까요? 어린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는 부모의 마음과 다를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인간을 잊으시고 아들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셨기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며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영광과 부활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선물, 그의 아들이 우리에게 준 속죄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 이 은사를 즉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약을 새롭게 하며 용서를 구하며 그리하여 영의 양식을 채우게 됩니다. 영의 성장없이는 하나님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받는 성찬식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여야 하겠습니까. 성찬 찬송을 부르고 빵과 물을 들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로 인하여 생기는 축복과 희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분을 경배할 때 처럼 말입니다. ○

사회에 소금이 되자

중앙지방부장 차 중 환



●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고 또한 “사람들이 나의 영원한 복음에 부름을 받아 영원한 성약을 맺을 때에는 저들은 세상의 소금이요 인간의 맛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삼 12 : 13, 교성 101 : 39). 자타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소금은 방부제와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물고기 같은 해산물에 쳐서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만일 소금이 없다면 여름의 고온 아래에서 세균은 무성히 번식하며 그리하여 해산물은 곧 상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조미료의 일종으로 사용되어 맛을 낸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행로에 같길은 두 길이 있으니 하나는 넓은 길이고 또 하나는 좁은 길입니다. 이들 두 길중에 우리들이 선택한 길에 따라 결과는 상반됩니다. 넓은 길은 가기 쉬우나 죽음에 이르는 길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들지만 가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요단강의 물고기가 가기 쉽다고 흐르는 물결을 따라 내려가면 사해에 들어가서 염분의 진한 농도 때문에 죽고 말지만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맑고 맑은 가릴리 바다에 도달하여 살기 좋은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은 “진정한 기쁨은 고난중에서 생겨난다”고 했고 위대한 교육자 페스탈로치는 “고난과 눈물이 나를 높은 예지에 이끌었고 보육과 즐거움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와 같아서 핍박과 고난이 많지만 이를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지막 날까지 나아가는 성도는 많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같이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소금이 그 본연의 성분인 짠 맛을 잃는다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어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 5 : 13, 니삼 12 : 13) 성도도 우리의 본연의 임무인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버림을 받을 것이요,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니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밭에 밟힐 뿐일 것입니다.” (교성 103 : 10)

부패의 원인은 박테리아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패는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썩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돈 때문에 종교도 썩고 교육도 썩고 양심도 썩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썩어가는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맛이 없는 이 세상에 아기자기한 맛을 생기게 하는 조미료의 역할을 하여 사회를 정화할 책임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고 조미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라는 고체가 액체인 용매에 녹아서 용액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용질인 소금은 녹아서,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본연의 임무인 방부제와 조미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세상에 나가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계적인 교회 출석과 안일한 생각과 행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구세주 예수나, 선지자 요셉 스미스와 같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은 못 할지라도 이웃을 위한 복음전도, 절약에 의한 십일조와 금식기금, 지부예산, 건축기금, 선교사 기금을 바칠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자기 발전을 위한, 봉사 정신과 교회 부름을 크거나 작거나 환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누는 물에 녹아 점점 작아짐으로써 즉 희생이 되므로써 많은 때를 씻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희생없이 인생을 보다 낮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익하다. 그러한 시도는 오히려 보다 낮게할 가능성조차 멀리 버리고 마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대신 희생 한다는 것은 곧 남을 섬기며 돕기 위하여 태어난 우리의 사명중의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사실중의 하나이며 곧 희생은 종교의 제1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의 역할과 같이 빛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지면 관계로 빛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

진리의 말씀

어린이가 묻기 시작하면

십이사도 정원회 리차드 엘. 이반스

어린이가 이것 저것 묻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미미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가끔 우리 마음 속을 뚫고 들어오거나 정신의 한가운데 까지 침입하여 정직하게, 또는 순진한 마음으로 이것 저것을 캐물어서, 우리 어른들이 자신을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줍니다. “어떻게 씨가 자라나요? 왜 추어요? 왜 어두어 지나요? 어떻게 심장의 소리가 나죠? 나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어째서? 무엇이? 아버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한 번 대답해 주어서는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궁한대로 답변을 해주면 또 다른 “왜?”라는 질문을 냅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지만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개의 세포가 결합, 분열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력은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상처가 혼자서 아물도록 하는것은 누구일까? 동물에게 본능을 준 것은 누구일까요? 물이 얼면 왜 팽창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아주 다른 세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발견하고, 관찰하고, 자연의 힘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다스리는 것을 주시하며 이를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해답, 즉 심리, 목적, 주요한 동기, 사태 발생의 기원 등에 관해서는 별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채하고 있는 것이나 배운 것의 걸치레는 결국 표면뿐이고 속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과 힘을 사용할 뿐입니다. “나는 의심한다.”라고 어느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나 창조자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관리자이신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창조물을 제 진로대로 운용하시어서 계절은 계속되고, 그리하여 봄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추수를 기대할 수 있고, 크고 작은 난관이 있을지라도 인생은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거나,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자기 독자적으로 가정하거나 공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과 경배의 마음과 존경심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린 아이의 질문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게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분부터 600키로 싸이클의 서울 중앙 방송국 제2방송에서 방송되고 있으며 560키로 싸이클의 AFKN에서도 주일 오전 10시 5분부터 방송되고 있습니다.